

■ 올 프로야구 눈여겨 볼 기록은?

장성호 10년 연속 3할타 도전

오는 4월 6일 개막을 앞둔 2007 프로야구가 올 시즌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기록으로 그리운드를 수놓을 전망이다. KIA의 교타자 장성호는 한국 프로야구 26년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10년 연속 3할타에 도전장을 내민다.



<장성호>

한화 송진우 통산 3천이닝 투구

삼성 양준혁 통산 2천안타 눈앞

전인미답의 고지를 개척해 가고 있는 송진우(41·한화)와 양준혁(38·삼성)은 각각 3천 이닝 투구와 2천 안타라는 신기록 수립을 노린다.

한국프로야구에서 9년 연속 3할 타율은 기록을 이어가는 이는 장성호 외에 양준혁(삼성) 뿐이다. 1996년 총암고를 졸업하고 해태에 입단한 장성호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3할 타율을 넘겼다.

일부분이 부문에서 한국인 타자 장률이 수립한 9년 연속 3할이 최고 기록이다. 타격 트리플크라운을 세운 오사다하루(소프트뱅크 감독)와 오치아이 히로미쓰(주니치 감독)도 각각 8년, 7년 연속 3할에 그쳤을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다.

또 지난해 사상 최초로 대망의 200

승 고지에 오른 송진우는 통산 2천 827이닝을 던졌다. 3천이닝까지는 173이닝이 남아 있는데 나이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2천 탈삼진까지는 59개만을 넘겨 뒤 올해도 '최초'의 영광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

개인 통산 1천946안타를 때린 '영원한 3할 타자' 양준혁은 54개만 보태면 2천안타 고지를 밟는다.

양준혁은 3천500루타(-195),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 기록도 처음으로 이뤄낼 태세다.

원순 투수 구대성(38)은 최초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와 7시즌 연속 20세이브 기록을 던졌다.

두 기록은 각각 1994년과 1996년부터 시작됐는데 구대성이 일본과 미국에서 뛰었던 2001년~2005년을 제외해 한국프로야구 연속 기록으로 인정 받고 있다.

SK의 언더핸드 투수 조동진(36)은 성실함과 꾸준함을 앞세워 사상 첫 12년 연속 50경기 출장과 700경기 출장(-8)이라는 두 마리 토끼 물이에 나선다.

이밖에 현대 외야수 전준호(38)는 '대도'의 자존심을 살려 첫 550도루를 달성하기 위해 스파이크 끈을 조여냈고, '팔공산 폭격기' 오승환(삼성)은 첫 2년 연속 40세이브를 위해 뛴다.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룬 삼성은 팀 1천700승(-38), 800세이브(-19), 3천100홀런(-60), 2만8천안타(-582) 등 네가지 신기록을 한꺼번에 노린다. KIA는 한국시리즈 10번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